

Best Learner에게 듣는 학습 전략 노하우 5 - 교외 리소스 활용 전략 및 모자이크 커리어를 통한 진로설계 전략 -

1. 모자이크 커리어란?

모자이크, 여러 가지 빛깔의 돌·색 유리·조각비·타일·나무 등의 조각을 맞추어 도안·회화(繪畵) 등으로 나타낸 것을 뜻하는 예술 용어이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모자이크와 커리어가 만났을 때 우리는 모자이크 커리어라는 개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 사의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스피치를 남겼습니다. 그 스피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Connecting the dots”, 즉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들의 가치는 현재 판단할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볼 때에야 그 경험들의 점들이 이어진 선 속에서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모자이크 커리어는 이와 같은 “Connecting the dots” 개념에 바탕을 둔 커리어 용어입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나가기 위해 소위 스펙 쌓기에 혈안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스펙 쌓기 관점에서의 경험들은 진정한 스펙으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아의 상실 대신 자아의 구축과 성취에 초점을 맞춘 모자이크 커리어는 자신이 현재 임하고 있는 활동과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이뤄나가고 싶은 것들 자체에 몰입하여 그 행위로부터 배우고 또 그 의미를 내면에 새겨가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쌓아 올린 경험들의 누적은 그 경험들이 다소 일정한 목적성을 띠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자아 형성과 이에 바탕을 둔 진로의 흐름에 소중한 자원이자 원류가 됩니다.

조 대 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부생

2. 모자이크 커리어 시작하기

모자이크 커리어는 어려운 성찰이나 훈련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난 경험들을 돌아보고 그 경험 속에서 어떠한 감정과 생각들을 겪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광활한 자신의 삶이라는 퍼즐판 위에 하나 둘 우선적으로 올려놓을 퍼즐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경험들이 충분치 않아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배경과 맥락 속에서 삶을 깊어 온 타인들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책이나 영화, 여행 등으로 얻어지는 가장 큰 산물 중 하나인 간접경험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경험을 겪고 있는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추천합니다.

우선 온오프믹스(<http://www.onoffmix.com>)는 오프라인의 모임들을 온라인에서 주최해 함께할 이들을 모으는 서비스들 중 가장 앞선 서비스이자 가장 방대한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교육과 교류에 관련된 모임들이 하루에도 수 십 건씩 개최되고 또 개설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믹스가 방대함을 그 특색으로 한다면 위즈돔(<http://www.wisdo.me>)의 경우는 사회에서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만날 기회를 얻기 힘든 현직 멘토들과의 만남이 특징입니다. 경제적인 격차는 결국 시간의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여기고 이러한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사회 전반의 진정한 멘토들을 중고생들부터 40대 퇴직자에게까지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위즈돔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골라서 만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캠퍼스(<http://cafe.naver.com/outcampus>)는 조금 더 대학생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아웃캠퍼스에서는 각종 대외활동들에 대한 정보들을 탐색할 수 있으며 체험형 마케팅 프로그램과 주요 공모전들의 경우 그 분석자료들까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플랫폼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 자신을 국한시키지 않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말을 걸 때 그 활용도가 최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진로들 사이에서 고민할 때 그 진로들을 걷고 있는 이들을 만나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진로 역시도 하나로 확정하고 그 분야에 경험들을 가두는 것보다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 끊임 없이 도전하고 경험을 해보며 자신에게 숨겨진 다양한 면들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

요합니다.

3. 모자이크 커리어 퍼즐 맞추기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배움을 경험하였다면, 그 내용들을 필히 자신의 것으로 새겨나가기 바랍니다. 모자이크 커리어, 그 커다란 퍼즐판 위에서 퍼즐들을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퍼즐이 가진 속성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다른 퍼즐들과의 관계성이나 연계성 역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저는 3단계 정리법을 활용하였습니다.

3단계 정리법은 다름아니라 간단한 포스트잇과 작은 다이어리, 그리고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에버노트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자이크 퍼즐 정리법입니다.

우선 어떠한 컨퍼런스나 모임에 갔을 때, 그 컨퍼런스의 내용이나 모임에서 만났던 이와 대화를 나눈 내용들을 끊임없이 포스트잇에 필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필기 내용의 중요도를 나눠 표기하고 추후 활용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검정펜 이외에 빨간펜과 노란 형광펜을 활용해 중요 포인트와 최중요 포인트를 직접 표시하며 필기할 것을 추천합니다. 어떠한 성공도 노트필기 습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포스트잇에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그 핵심내용들을 표시해두었다면, 자신이 직접 정한 기간(일주일, 한 달 등)마다 해당 포스트잇들을 늘어놓고 그 유사성과 관계성 및 연계성에 비추어 보며 그루핑하고 그 안에서도 순서를 매겨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는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해 묶어나갈 수 있으며 망각을 늦추고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쏠리는 지에 대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그룹별로 정리된 포스트잇의 내용들을 스캐너나 직접 입력 방식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버노트에 정리해 나갑니다. 에버노트는 다양한 자료들을 태그(tag) 기반으로 정리함으로써 각종 디바이스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노트 서비스입니다. 에버노트에 포스트잇의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그 순서와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꼭 표시하며 진행하고 무엇보다도 태그를 명확하게 기입해 추후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위 3단계 정리법을 통해 수합된 경험의 산물은 자신의 모자이크 커리어를 채워나가고 퍼즐을 맞춰나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선호와 관심은 물론이고 자신이 기피하는 것과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면들까지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진할 진로나 보안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여 직접 행동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커리어의 핵심은 자신이 현재 임하고 있는 행동 그 자체에 진정 몰입해 그 안에서 가치와 깊이 있는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용기 있게 직접 부딪혀가며 자신의 자아를 건강하게 쌓아 올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